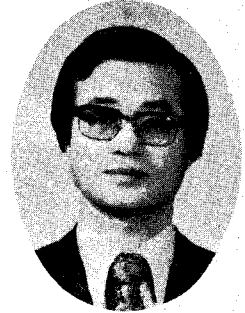


케이지 육추관리

원 송 대
(연암축산전문대학 교수)



육성할 병아리가 많을 때 케이지 육추방법이 적합하다. 특별히 설계된 육추용 케이지에서 6주간 육추를 한 다음 육성케이지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케이지 육추시에도 평사 육추관리와 동일한 입추전의 준비사항에 준한다.

필자가 권하고 싶은 것은 초생추선택에 있어 재삼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병아리 구입은 능력이 우수한 품종을 사육하여 부화하는 부화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우수한 부화장이란

(1) 우량한 종계를 보유하며 종계 관리가 철저한 부화장

(2) 부화기 성능이 우수하여 부화율이 높으며 발생초생추중 약추율이 1~2%로 낮은 부화장

(3) 종계에 대한 추백리 검사를 최소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부화장

(4) 기술지도가 철저하고 공신력이 있는 부화장

(5) 위생시설과 위생관념이 철저한 부화장

(6) 부화기의 성능이 좋으며 기계가 정밀한 부화장

케이지 육성실 육성법

(1) 2 단계 케이지 - 상층 육성법

(가) 동일 계사내에 면적 20×24인치 케이지를 2 계단으로 설치하되 처음 상층케이지에서 병아리 20~22수를 4~6주간 육추한 다음 반수(10~11수)씩을 아래 케이지로 옮기는 방법이다. 이동시 필요하면 부리자르기를 실시하여 여기서 20~22주령까지 수용한다.

(나) 상층케이지에서 육추할 때는 병아리가 빠지지 않도록 바닥은 간격 0.5~1.0인치, 케이지 측면은 1×1인치 간격의 철망을 끼워 놓는다.

또한 급이기, 급수기 및 케이지 면적은 병아리 주령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사료의 허실을 방지할 수 있게 설치하며 그밖의 시설은 가급적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2) 3 단계 - 중간케이지 육추법

(가) 위의 방법과 같되 육추를 중간케이지에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같은 면적의 계사에서 보다 많은 닭을 육성할 수 있는 점이다.

(나) 처음 20×24인치 케이지마다 병아리 30수를 3~4주간 사육한 다음 윗케이지와 아래 케이지로 각각 10수씩 이동한다.

(다) 이 방법의 결점은 상층과 하층케이지에 수용된 병아리 관리가 약간 불편한 점이다.

(3) 4 단계 - 상층육추 - 하층육성법

이 방법은 육추케이지를 상층에 별도로 설

치하는 방법이다. 육추케이지에서 5~6주간 사육한 다음 병아리 전체를 아래 케이지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육추케이지는 병아리 육성 기간에는 완전히 놀게 되며, 따라서 시설비가 많이 드는것이 결점이다.

케이지 육성시 적정 병아리 수용수

케이지크기 (인치)	병아리마리수	최대주령
24×24	16~20	6
24×60	30	6
24×24	13~14	8
24×24	8~10	20

○보조 난로

최근 선진국에서는 케이지 육추기에 82℃ 가량의 뜨거운 물을 파이프로 통과시켜 케이지 전체에 열을 고르게 올려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탄 난로로 보조열을 공급하는데 케이지 전체에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케이지 바닥에 종이 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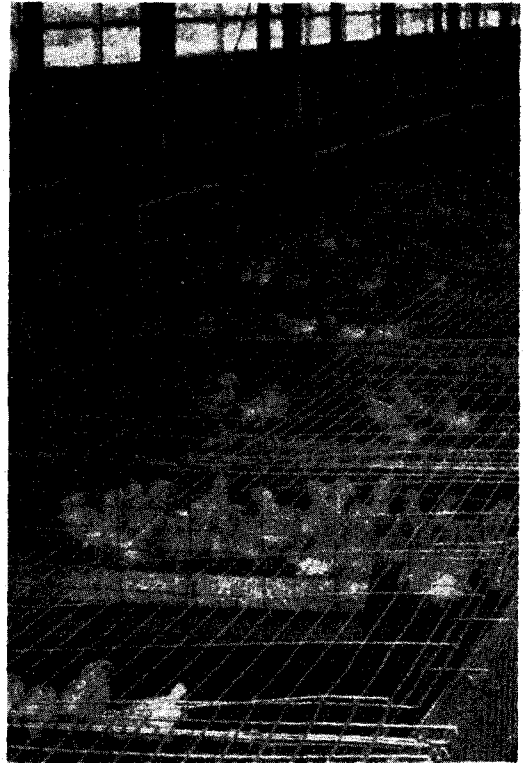
약 2주령까지는 철망위에 종이를 깔아준다.

- ① 어린 병아리에 평사 같은 느낌을 주고
- ② 철망사이에 다리가 빠지는 것을 막고
- ③ 케이지 육추시 온도를 높여 주고
- ④ 종이 위에 사료를 주므로 사료섭취를 유도해 준다.

○급 수

평사육추와 마찬가지로 케이지육추시 물을 빨리 먹도록 유인해 준다.

흔히 케이지 육추시 급수기 시설이 나쁘거나 급수기 배치가 잘못 되어 물을 먹지 못해 탈수증으로 죽는 수가 많다. 외국에서는 물컵이나, 원형물통이나, 젓꼭지 같은 급수기가 개발되어 케이지 육추에 편리하나 이것도 병아리가 숙달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 육성할 병아리가 많을 때 또는 육추의 효율화를 위해서 케이지 육추관리가 많이 실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급수기에 익숙해지기 까지는 작은 물통을 케이지 바닥에 2~3일간 넣어 주면 도움이 된다. 물론 이때 급수는 신선한 물이어야 되고 겨울에는 미지근하게 데워주는 것이 좋다.

○실내온도

특히 케이지 육추시에는 실내온도가 높아야 케이지 전체의 온도가 고르게 된다. 그러므로 케이지 육추실의 온도가 평사의 샷갯밀의 온도와 비슷해야 된다.

그런데 온도를 너무 올리니까 털이 잘 자라지 못하고 카니발리즘(악벽)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적합한 환기를 해주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 선

평사육추시보다 케이지 육추시에 광도가 고르게 비치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은 케이지가 높을 수록 빛이 가려져 그늘이 생기기 때문이다.

① 입추후 첫 4일 동안은 사료와 물은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전기를 켜준다. 이때 광도는 3~3.5축광 정도로 한다.

② 입추 4일후 부터는 품종에 따른 점등 프로그램에 따른다.

③ 4일 이후는 맨 아래 케이지를 기준으로 1.5축광 정도 해준다.

이것은 사료만 먹을 수 있도록 하며 카니발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최근에 전기가감기(Rheostat)를 사용하여 광도를 조절하는 농장도 있다.

○벼슬자르기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채란용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벼슬을 잘라주는 예가 외국에서는 많다. 그 이유는 벼슬이 너무 커서 상처를 받거나(특히 모기), 한쪽눈이 가리워 신경질을 부리기 때문에 벼슬을 잘라준다.

○부리 자르기

악벽은 케이지 사육에서 많이 생기므로 6~9일령에 부리를 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부리 자르는 것은 숙달된 일꾼이 실시해야지 잘못 자르면 아니 자른것만도 못하다

○발가락 자르기

산란계는 잘 놀라고 신경질적이므로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일일령에 발가락을 잘라줘서 발톱이 못자라게 해준다. 실험보고에 의하면 발가락을 잘라 줬더니 수당 12개의 알을 더 나아 주었다고 한다.

○첫모이 주기

병아리가 도착하면 먼저 물을 급여하고 3시간 후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겠다. 철망위에 종이를 깔고 그위에 사료를 뿌려준다.

○급이기 면적

6주령까지는 수당 2.5cm의 급이기 넓이면 된다.

○육추기간중 부단급여

보통 6주령까지는 자유채식을 시켜 부단급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때 너무 많이 사료통에 사료를 채워서 사료가 허실되면 안된다.

6주령 이후부터 제한 급여를 하여 체중조절에 들어가면 이상적으로 닭을 키울 수 있겠다.

○사료 섭취량

사료의 종류, 닭의 품종, 부화계절에 따라 사료섭취량이 다르겠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수치가 참고가 되겠다.

100수당 사료섭취량 (단위 kg)

주령	Leghorn(백색계)		Medium Size(유색계)	
	매일섭취량	누 계	매일섭취량	누 계
1	1.32	9.0	1.60	11.3
2	1.81	21.8	2.59	29.5
3	2.45	39.0	2.77	49.0
4	3.18	61.2	3.94	76.7
5	3.63	86.6	4.13	105.7
6	3.81	114.0	4.31	136.0

○케이지 육추시 질병

케이지 육추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호흡기 질환이다. 특히 만성호흡기병(C. R. D)이 케이지 육추시에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는 케이지 사육자체가 좁은 공간에 다수 사육하는 밀사이기 때문에 병이 쉽게 전파되고 또한 환기 불량으로 호흡기병이 쉽게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평사육추시보다 환기, 온도, 습도에 더 유의해야지 케이지 육추에 성공할 수 있다.